

## 위성 개발·제조·발사… 한화우주센터 준공

연면적 1만여 m<sup>2</sup> 규모로 착공 1년 8개월만에 조성  
최첨단 시설 갖춰 매달 4~8기 소형위성 생산 가능  
오영훈 지사 “제주, 우주산업 독자적 공급망 구축”

제주지역에 위성을 연구·개발하고  
제조하는 우주산업 전초기지가 조  
성됐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서귀포시  
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오영훈 지  
사와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,  
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  
운데 ‘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  
공식’을 개최했다.

한화 제주우주센터는 연면적 1만  
여m<sup>2</sup> 규모로, 위성 조립·시험·보관  
등 우주산업의 전 과정을 수행할  
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. 한  
화 제주우주센터 공사는 지난해 4  
월 시작해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  
됐다. 제주도는 한화 제주우주센터  
가 본격 가동할 경우 매달 4~8기  
소형 저궤도 위성을 생산할 수 있  
으며 이는 단일 시설 기준으로 국  
내 최대 수준의 양산 능력이라고  
설명했다.

한화 측은 지구관측 위성으로 활  
용되는 ‘SAR(합성개구레이더) 위  
성’ 중심으로 생산에 나선다. SAR  
위성은 기후 및 환경 변화 예측, 재  
난 감시, 지원탐사 및 안보 등의 분  
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.

센터가 생산한 위성은 곧바로 인  
근 제주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다.  
제주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최  
적의 발사각도와 안정된 낙하구역  
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 
있다.

제주도는 한화 제주우주센터 준  
공에 대해 위성 제조와 발사의 물  
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 
‘제주형 우주산업 공급망’이 구축

된 것이라고 평가했다.

이날 오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 
“오늘 준공된 센터는 제주가 ‘뉴스  
페이스의 심장’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 
알리는 신호탄”이라며 “이제 제  
주에서 만든 위성이 제주 앞바다에  
서 우주로 올라가는 독자적인 공급  
망이 완성됐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 
“민관이 협력하는 우주산업 전진기  
지가 되기에 충분한 여건을 만들었  
다 생각한다”고 덧붙였다.

제주도는 한화 제주우주센터 준  
공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 
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 한화 제주  
우주센터는 앞으로 300여명을 더  
채용할 예정이다. 이미 ‘협약형 특  
성화고’로 지정된 한림공업고등학  
교 졸업생 4명이 한화 제주우주센  
터에 정식 채용된 상태다. 또 제주  
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앵커  
기업(선도기업) 역할을 할 한화 제  
주우주센터 준공을 계기로 연관 기  
업을 추가로 유치해 이 곳을 우주  
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클러스터로  
육성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2026년부터는 우주산  
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‘위성  
정보 활용(Downstream)’ 분야로  
도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.

도 관계자는 “위성에서 수신한  
데이터를 농업, 환경, 해양, 교통 등  
다양한 산업에 접목하는 ‘위성정보  
활용 클러스터’ 지정을 정부에 건  
의하고, 제조부터 운영, 데이터 활용  
까지 우아르는 완결형 우주산업  
생태계를 조성하겠다”고 했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

2일 오후 서귀포시 하원동 구 탐라대 부지에서 한화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이 열렸다. 사진은 한  
연합뉴스



한화 제주우주센터에서 생산될 초저궤도 SAR 위성 모형. 연합뉴스

### “한화우주센터, 환경파괴·군사화 심화시킬 것”

#### 시민단체·진보정당 등 회견

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노  
동당 제주도당, 정의당 제주도당,  
제주녹색당 등 15개 시민단체와 정  
당은 2일 오후 1시쯤 한화우주센터  
준공식이 열린 서귀포시 하원동 구  
탐라대 부지에서 ‘한화우주센터 완  
공 규탄 및 해상 발사장 반대’ 기

#### 사회경과 집회를 열었다.

이들은 “전쟁의 눈과 귀가 될 위  
성들을 생산할 한화우주센터 건립  
은 제주의 환경파괴와 군사화를 심  
화시킬 것”이라며 “제주도정이 한  
화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 
있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사업을 중  
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”고 목  
소리를 높였다. 양유리기자

사업보조금 30억 편취 건설업체 대표 등 8명 송치… 4면 / 제주 ‘초고령 사회’ 진입… 5면

선거구 획정, 결국 법정기한 넘겼다  
국회 정개특위 구성 지연… 도 “상황 지켜볼 것”

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 
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회 정치개  
혁특별위원회(정개특위) 구성 지  
연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 제출이  
법정기한을 넘겼다. 이에 제주도와  
도의회선거획정위원회는 신중한  
태도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 
이다.

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르면 지  
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  
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  
고 보고서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제  
출해야 한다. 내년 지방선거의 선  
거구 획정 제출 기한은 12월 2일까  
지였다.

제주도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  
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45명에서  
4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 정  
개특위를 통한 의원정수 확정이 필  
수적이다.

행정안전부가 교육의원 일몰에  
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해 현재 45  
명에서 교육의원을 뺀 40명이라는  
유권해석을 낸 가운데, 조국혁신당  
정춘생 의원이 의원정수를 45명 현  
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 
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개특위 심  
사가 불가피하다. 그러나 지금까지  
도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논의단계  
에 머물며 지난 지선과 비슷한 수

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 
정개특위는 지난 2022년 제8회  
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  
를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야 제주  
도의회 의원 정수를 결정했다.

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  
정위원회는 3일 제10차 회의를 열  
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.  
이번 회의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  
쳐 수렴한 주민 의견을 국회에 전  
달하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는 자  
리로, 그 외 별도 논의는 추후에 진  
행할 예정이다. 의원정수가 확정되  
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 
피하겠다는 입장이다.

위원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  
를 통해 “국회 입법 동향만 보고  
선별부록 예단하는 것은 더 큰 도  
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구체적  
인 계획이나 선거구 획정 제출의  
마지막을 말하기는 어렵고, 지금  
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  
안을 검토 중”이라며 “도민들이 광  
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인  
만큼 신중을 기해 진행하고 있다”  
고 밝혔다.

도 관계자도 “교육의원이 일몰되  
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가  
확정된 이후에야 선거구를 확정할  
수 있을 것”이라고 했다. 오소범기자

### 제주 항만에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

국내 최초… 5000명 입국 시 2시간 30분→1시간으로

제주지역 항만에 국내 최초로 무인  
자동출입국심사대가 들어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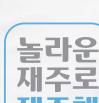
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항 국  
제여객터미널과 서귀포시 강정 크  
루즈여객터미널에서 자동출입국심  
사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초 제주항  
국제여객터미널에 자동출입국심사  
대 10대(입국장 7대·출국장 3대)를  
우선 설치해 시범 운영했으며 이어

강정 크루즈터미널에도 28대(입국  
장 21대·출국장 7대)를 설치했다.

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에  
는 법무부 예산 52억5000만원과 제  
주도 지방비 5억3500만원 등 57억  
8500만원이 투입됐다.

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대 도  
입으로 5000명 입국 심사에 2시간  
30분가량 걸리던 것이 1시간으로  
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. 이상민기자



지역사회공헌  
인정기업  
CSR in the  
Community  
2025

## 빛의 물, 제주의 내일을 밝히는 놀라운 재주

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,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 
오늘도 상생의 재주를 이어가겠습니다

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
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.